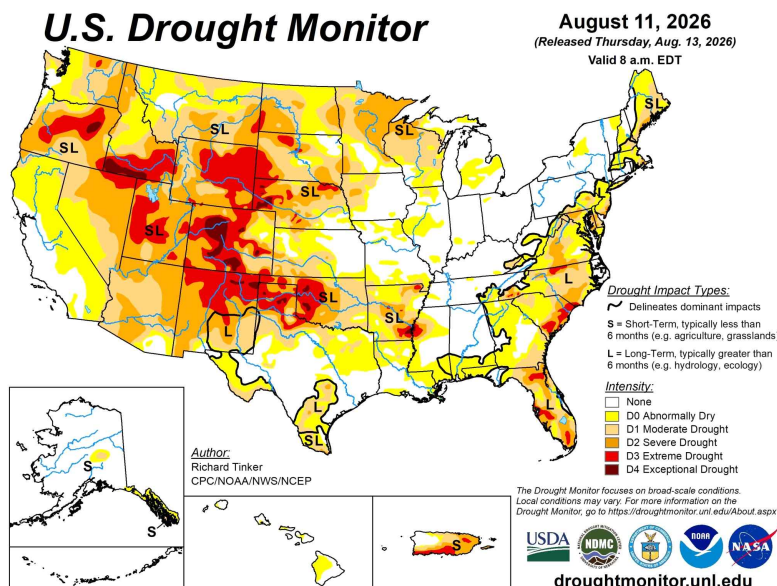




8월 1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3, No. 33)

□ 미국 기후 현황(2026/8/9-2026/8/15)

북미 몬순 순환과 여러 한랭전선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미국 중남부와 남동부에 자리 잡은 고기압 능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과도한 강우(국지적으로 4~12인치 이상)가 내렸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대는 아이오와주 일부에서 애팔래치아산맥 중부까지 이어졌으며, 인디애나주 중동부 전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주말 무렵에는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 중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홍수가 발생했다. 상당한 강우가 대평원 북서부 절반 지역까지 확대되어 농작업을 지연시켰지만, 방목지와 목초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름작물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북부 대평원 대부분에서는 성숙 중이거나 수확 중인 봄 파종 소립곡물에게 비가 너무 늦게 내렸다. 반면, 남부 대평원에서는 극심한 더위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름작물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초래했다. 가축도 4주간 이어진 고온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몬순과 관련된 소나기 활동이 서부 전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태평양 연안 주들과 그 밖의 여러 지역에는 대부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서 36건이 넘는 산불이 계속 타면서, 미국의 연초 이후 산불 피해 면적은 700만 에이커를 훨씬 넘어섰다. 지속적인 고기압 능의 영향으로 중부와 남부 대평원에서 중남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 F 높았다. 남서부 옥수수 벨트에서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그러나 중서부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았다. 이와 비슷한 기온 조건은 북동부까지 이어졌으며, 몬태나주와 노스다코타주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5° F 낮은 평년 미만의 기온이 나타났다. 서부에서는 주 초반의 더위 뒤에 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균기온은 대부분 평년에서 몇 도 이내의 범위를 보였다.



□ 농업 현황 요약(2026/8/10-2026/8/16)

미국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기상 조건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미국 중부와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했으며, 캔자스주, 오클라호마주, 미주리주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6~10° F 높았다. 태평양 북서부, 북부 로키산맥, 뉴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북부 로키산맥과 북부 대평원에서는 평년보다 많은 강수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 강수량이 평년의 두 배를 넘었다. 평년보다 습윤한 상태는 중부 대평원에서 오하이오강 유역까지 이어졌으며,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오하이오주 일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평년보다 최대 6인치 많았다. 반면, 태평양 연안, 남부 대평원, 델타 지역, 남동부 대부분과 더불어 미시시피강 상류 유역과 오대호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가 우세했다.

□ 세계 기후 현황(2026/8/9-2026/8/15)

■ 유럽:

한 차례의 폭염이 동유럽에서 물러나는 동안, 또 다른 폭염이 유럽 서부 지역에서 발달했다. 주 초반에는 극심한 더위(30° C대 중반에서 후반)가 독일과 폴란드 서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해 헝가리와 발칸반도에 영향을 미친 뒤, 8월 12일에는 이 지역에서 물러났다. 짧지만 강렬한 고온으로 국지적으로 최고기온이 38° C를 넘었으며, 독일 남부에서 헝가리, 세르비아 북부, 루마니아 서부에 이르는 지역의 가뭄을 심화시키고 여름작물의 성숙과 건조를 앞당겼다. 또한 다뉴브강 하류 유역에서 당초 양호했던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의 수확량 전망이 악화되었지만, 남동부 유럽의 작황 상태는 북부의 극히 불량한 수준에서 남부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5월 중순 이후 네 번째 폭염이 주 전반기에 서유럽에서 발달하고 강해졌으며, 최고기온은 스페인에서 40° C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 최고 41.5° C를 기록했고, 프랑스에서는 최고 42.5° C에 달했으며, 잉글랜드 남동부에서는 37.8° C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생육기간 동안 기록적인 고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여름작물의 성숙과 건조가 이미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유럽의 극심한 더위가 현재 매우 좋지 않은 여름작물의 수확량 전망에 추가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두 번째 폭염은 주가 끝나갈 무렵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서부, 헝가리, 발칸반도 서부를 지나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이 지역에서도 성숙 중인 여름작물에 추가로 미친 심각한 악영향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최신 위성 기반 식생건강지수(VHI)는 프랑스와 헝가리에서 이맘때 기준으로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잉글랜드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식생건강지수는 앞선 2주 동안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측 기간 후반에는 프랑스 남서부와 중북부에서 더 서늘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2~20mm)가 나타났지만, 유럽의 주요 작물 재배지역 대부분에서는 강우량이 5mm 이하에 그쳤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지상 기상관측소 자료는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 및 위성 자료를 활용했다.



■ 구소련(서부):

한랭전선이 최근의 짧은 폭염을 갑작스럽게 끝냈지만, 소나기는 대부분 이 지역의 동부에 국한되었다. 주간 평균기온은 남부에서 평년 수준이었고, 러시아 중서부에서는 평년보다 2~4° C 낮아, 전주의 이례적인 고온에서 급격히 반전되었다. 낮 최고기온은 북부에서 20° C대 중반에서 후반, 흑해 연안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30° C대 초반에서 중반을 기록했지만, 주 초반 러시아 남부 연방관구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 C에 달했다. 한랭전선과 관련된 소나기와 뇌우는 대부분 러시아 서부(5~40mm)에 국한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국지적인 일부 지역에서는 보통에서 많은 비(10~45mm)가 내렸다. 이 지역의 대부분 여름작물(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은 등숙기에 있었으며, 월초의 고온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확량 전망은 양호에서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 호주:

기간 초반의 습한 날씨로 겨울작물의 토양 수분 상태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남부와 남동부의 작물 재배지역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 서호주에서는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기(2~30mm)가 내려, 남부의 영양생장기에서 북부의 생식생장기에 이르는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토양 수분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했다. 그러나 이 주의 주요 농경지 대부분에서는 5월 1일 이후 단기적인 강우 부족이 계속되었지만, 최신 위성 기반 식생건강지수(VHI)는 이 초기 생육 단계에서 작물 생육 활력이 양호에서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더 동쪽의 호주 남부와 남동부에서는 주 초반에 보통에서 많은 비(10~65mm, 국지적으로 그 이상)가 내려 영양생장기에 있는 겨울밀, 보리, 유채의 수분 공급을 늘렸으며, 보고에 따르면 이들 작물 재배지역 대부분에서는 5월 1일 이후 강우량이 평년보다 많은 상태를 보여 왔다. 강우량은 북쪽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에서는 5~20mm를 기록한 반면 퀸즐랜드주 남부에서는 10mm 미만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최신 식생건강지수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호주 남부와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작물의 작황 전망은 양호에서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간 평균기온은 대륙 남서부와 중동부에서 평년 수준이었지만, 빅토리아주 북서부와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의 머리강 유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2° C 높았다.

■ 동아시아:

지난주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린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더 건조한 경향이 나타났다. 9일에는 태풍 돌핀이 중국 남동부 저장성에 상륙해 폭우를 쏟아부었으며, 국지적으로 강우량이 200mm를 넘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양쯔강 하류 유역을 포함한 중국 남부와 동부 전역에 25~200mm의 광범위한 비가 내렸으며, 이 수분은 주요 생육 단계에 있는 벼의 생육을 뒷받침했다. 더 북쪽의 화북평원에서 중국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건조한 양상이 나타났지만, 10~100mm의 비가 내려 전반적으로 옥수수, 대두, 봄밀에 도움이 되었다. 한반도는 대체로 건조했으며, 일부 지역의 강우량은 10mm 미만에 그쳤고 10~50mm의 소나기도 산발적으로만 내렸다. 반면, 열대폭풍 찬홈은 도쿄 북동쪽의 일본 중부에 상륙해 200mm가 넘는 비를 내렸다. 낮 최고기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30° C대 초반에서 중반을 기록했으며, 일부 국지적인 지역에서는 30° C대 후반까지 올랐다.

■ 아르헨티나:

자료없음

■ 브라질:

자료없음